



# 유럽 및 아시아 지역, 10년간 세계보험시장 성장을 견인

박정희 선임연구원

요약

■ 최근 10년간 세계 보험시장은 연평균 6.8% 성장하였는데, 2000년대 초중반에는 유럽 지역이, 2000년대 중후반에는 중국 등의 아시아 지역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험시장은 2009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2010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으며, 향후 아시아 지역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10년간 세계 보험시장은 연평균 6.8% 성장하였는데, 보험시장 규모가 가장 큰 아메리카 지역보다 유럽(8.7%)과 아시아 지역(7.7%)이 성장을 견인함.

● 2000년대 초중반에는 유럽 지역의 성장을 중심으로, 2000년 중후반에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성장을 중심으로 세계 보험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표 1〉 최근 10년간 세계 보험시장 지역별 성장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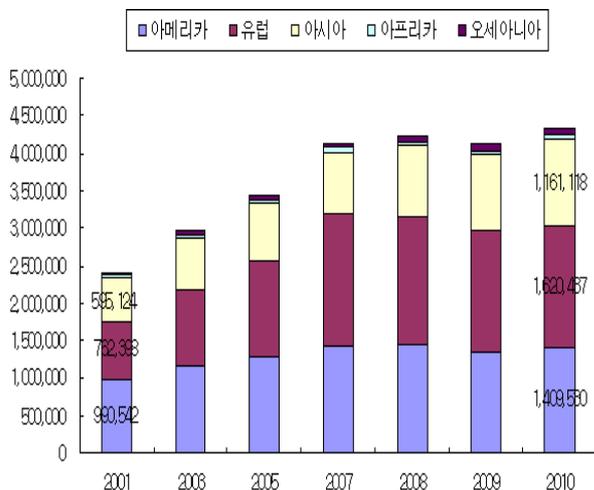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아메리카	2.4	10.5	5.9	6.0	4.2	4.2	7.1	1.5	-6.4	3.8	4.0
유럽	-2.0	11.1	22.4	16.4	6.8	13.0	21.2	-3.5	-5.2	0.4	8.7
아시아	2.5	5.7	8.9	7.9	2.8	2.4	4.4	15.1	8.5	14.5	7.7
아프리카	4.1	1.0	30.9	12.2	9.9	45.5	18.3	-23.3	8.8	16.1	11.7
오세아니아	-1.9	5.1	23.0	17.3	6.8	-13.6	7.6	46.3	-16.2	23.3	9.6
전세계	1.0	9.3	12.4	10.3	4.9	7.3	12.3	2.2	-2.6	5.6	6.8

● 지역별 보험료 수입의 경우 2001년 아메리카 지역이 9,905억 달러, 유럽 지역이 7,624억 달러, 아시아 지역이 5,95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각각 1조 4,096억 달러, 1조 6,201억 달러, 1조 1,611억 달러로 증가함(〈그림 1〉 참조).

- 이에 따라 2010년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보험료 수입 비중은 2001년 대비 각각 5.6%p, 2.1%p 확대된 반면, 아메리카 지역은 8.6%p 감소하였음(<그림 2> 참조).
  - 2005년 이후 유럽의 비중이 아메리카를 상회하였음.
-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유럽 지역의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아시아 지역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보험시장의 성장 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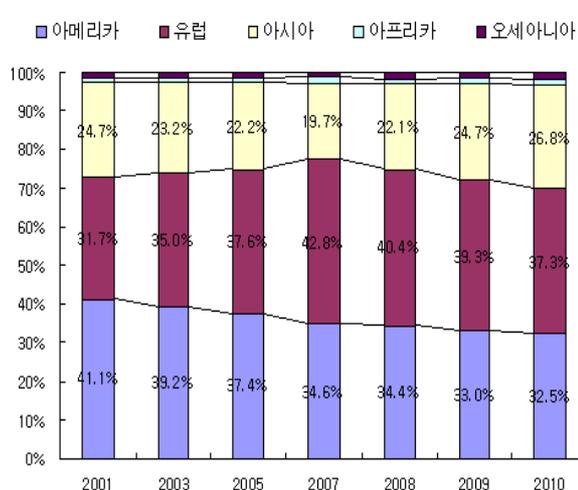
<그림 1> 지역별 보험료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그림 2> 지역별 보험료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Swiss Re, Sigma 2001~2010.

■ ■ 지난 10년간 보험시장의 국가별 순위는 중국의 순위가 크게 높아지는 등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 (<표 2> 참조).

- 중국의 경우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가 2001년 13위에서 2010년 6위로 크게 높아졌으며, 이 중 생명 보험은 15위에서 5위로, 손해보험은 13위에서 7위로 순위가 상승함.
- 반면, 한국은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가 2001년 7위에서 2010년 9위로 2단계 하락하였으며, 생명 보험이 7위에서 8위로, 손해보험이 2001년과 동일한 10위를 기록하고 있음.

〈표 2〉 세계보험시장 국가별 순위

구분 순위	2001년			2010년			보험료 (백만 달러)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1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1,166,142
2	일본	일본	일본	일본	독일	일본	557,439
3	영국	독일	영국	영국	일본	영국	310,022
4	프랑스	영국	독일	프랑스	영국	프랑스	280,082
5	독일	프랑스	프랑스	중국	프랑스	독일	239,817
6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국	214,626
7	한국	캐나다	한국	독일	중국	이탈리아	174,347
8	네덜란드	스페인	캐나다	한국	캐나다	캐나다	115,521
9	캐나다	네덜란드	네덜란드	인도	이탈리아	한국	114,422
10	호주	한국	스페인	대만	한국	네덜란드	97,057
11	스위스	호주	호주	캐나다	스페인	인도	78,373
12	스페인	스위스	스위스	남아프리카	러시아	대만	76,425
13	남아프리카	중국	중국	아일랜드	호주	스페인	76,082
14	대만	브라질	대만	호주	브라질	호주	72,572
15	중국	벨기에	벨기에	스페인	스위스	브라질	64,093
-	-	-	-	-	-	합계	4,338,964

자료: Swiss Re(2010), Sigma 2001.

■ 한편, 2010년 세계 보험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의 성장을 중심으로 보험료는 2009년에 비해 2.7% 상승한 4조 3,390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를 지님.

- 2010년 생명보험시장은 2009년 대비 3.2% 성장한 2조 5,201억 달러를, 손해보험시장은 2.1% 성장한 1조 8,189억 달러를 기록함.
- 2010년 생명보험시장은 미국(-0.7%) 및 영국(-3.3%)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13.1%) 및 일부 유럽 지역의 회복세에 힘입어 성장하였음.
  - 유럽 지역의 경우 비갱신형 단일보험료(single premium) 상품 판매가 늘어났고,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전통형 상품과 투자연계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아시아 지역에서도 특히 중국의 생명보험시장이 2009년 대비 25.6% 성장하였으며, 이외에도 대만(15.8), 싱가포르(10.3%), 홍콩(10.0%) 등이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기록함.

- 2010년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아시아 지역의 강한 경제 회복력에 힘입어 보험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유럽과 미국에서의 보험료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동남아 지역의 손해보험시장이 2009년 대비 22% 성장하였고, 이 중 약 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28%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함.
    - 반면, 중앙 및 동유럽의 손해보험 시장은 지속적으로 감소세(-2.1%)를 보이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영국 등 일부 유럽 지역에서도 개인 자동차 보험요율 상승에 따른 자동차 보험실적 부진이 손해보험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 외 호주의 경우에는 빈번한 거대 자연재해로 손해율이 크게 상승하여 언더라이팅 결과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0년 보험밀도(국민 1인당 보험료)는 스위스가, 보험침투도(GDP 대비 보험료 규모)는 대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보험밀도는 2,340 달러로 세계 23위를 기록하였으며, 보험침투도는 11.2%로 세계 6위를 기록하였음.
- 향후 세계보험시장은 유럽 지역의 국가부채 위기 확산과 주요 산유국의 정세불안 등과 같은 불확실성이 잔존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 신흥국의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kiri